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중·유럽 블록트레인, 1분기 운행 편수 및 화물 수송량 증가



물류정책 · 산업동향

1. 글로벌 디지털 물류정보 흐름의 핵심 거점이 될 스마트 항만의 미래
2.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윌밍턴항, 신규 냉장 컨테이너 아드 개장
3. 몬트리올항, 화물처리 자동화 솔루션 채택
4. DP World, 전세계 디지털 플랫폼 출시
5. 일본발 미국항 '컨' 물동량 감소세 지속~직항 늘고 환적 줄어



공지사항

-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대상 기업 모집

명사 스피치

“전기화물차 도입을 시작으로 친환경 포장재 개발, 첨단물류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통해 클린물류를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

박근희 CJ대한통운 부회장
(2020. 4. 24. /뉴스퀘스트)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중-유럽 블록트레인, 1분기 운행 편수 및 화물 수송량 증가

- 중국 우한, 충칭, 청두, 정저우, 시안, 이우 등 도시가 개통했던 중-유럽 블록트레인이 속속 정상화됨에 따라 올해 1분기 운행 편수와 화물 수송량이 안정적으로 증가함
- 중국철도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총 1,941편의 중-유럽 블록트레인이 운행했으며, 화물 수송량은 17.4만TEU로 각각 전년 동기대비 15%와 18% 증가함
 - 이중 유럽항 및 북항 블록트레인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24%와 6% 늘어난 1,049편과 892편이 운행했으며, 유럽항 및 북항 블록트레인의 풀 컨테이너 비중은 각각 99.9%와 95.9%로 집계됨
 - 또한 유럽항 수송 화물은 9.5만TEU, 북항 수송 화물은 7.9만TEU로 각각 전년 동기대비 28% 및 8% 증가함
- 한편 지난 3월 한달 간 운행된 중-유럽 블록트레인은 809편, 화물 수송량은 7.3만TEU로 전월 대비 각각 30%와 36% 급증하여 지금까지의 월별 기록을 경신함
 - 이중 유럽항 블록트레인이 503편 운행했으며, 4.6만TEU를 수송하여 각각 전월 대비 49%와 55% 큰 폭으로 증가함
 - 북항 블록트레인의 경우 306편으로 2.7만TEU의 화물을 수송했으며, 이는 전월 대비 각각 7%와 12% 증가한 수치임
 - 아울러 유럽항 및 북항 블록트레인의 풀컨테이너 비중은 각각 100%와 97.3%로 나타남
- 중국철도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중-유럽 블록트레인은 구간별 운송을 시행 중으로 인원에 대한 검역 문제가 없어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유럽 교역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부상했으며, 방역물자 수송의 중요한 루트로도 부상했다고 밝힘
 - 지난 3월 21일 유럽으로 수출되는 방역물자를 적재한 첫 중-유럽 블록트레인이 이우를 출발한 이후 같은 달 말 현재까지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체코, 폴란드, 헝가리,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로 총 33.4만 건, 494톤의 방역물자를 수송함

■ 참고자료 : www.tradeinservices.mofcom.gov.cn, (검색일: 2020.4.17)

김은우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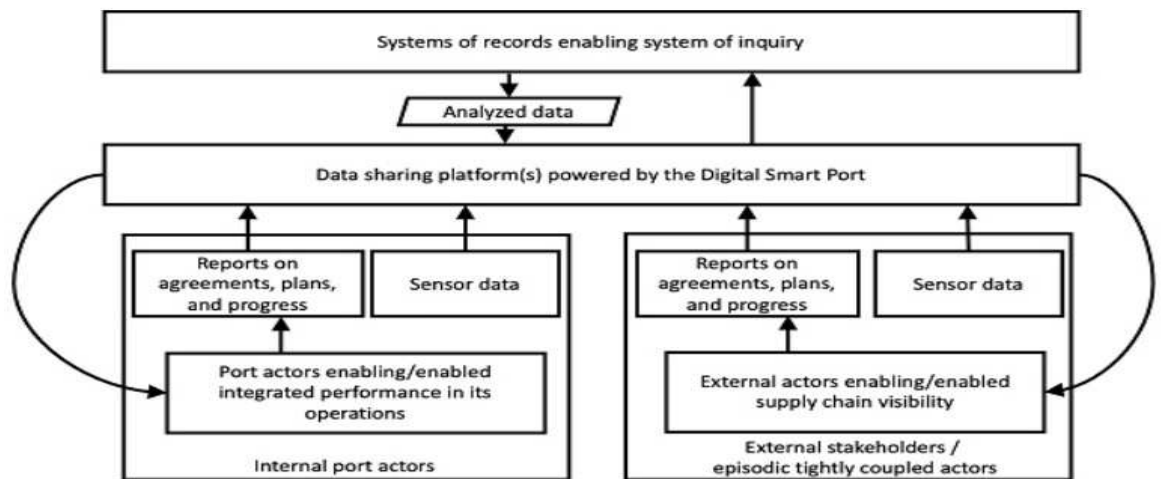
051-797-4680, hisgrace@kmi.re.kr

물류정책·산업동향

글로벌 디지털 물류정보 흐름의 핵심 거점이 될 스마트 항만의 미래

- 항만 및 물류공급망에는 각각의 이해관계가 얹혀있는 수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위해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데이터 및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항만을 통해 이들은 서로 협업과 공유 등의 방식으로 의사결정 실현이 가능함. 스마트항만의 미래 트렌드는 다음과 같음
 - 비용절감 센서 등과 같은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장비가 부두, 안벽, 도로, 교량, 철도, 터미널, 배후창고 등 물류 인프라에 설치되어 이용자는 실시간 데이터 정보 공유를 통해 항만 및 배후 인프라 시설 이용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사전에 예측하고 절감할 수 있음
 - 컨테이너 및 크레인, 야드 장비 등 화물 하역을 위한 항만 내 모든 장비가 최첨단 디지털 방식으로 연결되어 장비 관리는 물론 고생산성 하역 작업을 통한 선석 생산성 제고 등 터미널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함
 - 해상 및 복합 운송의 정시성 및 연결성 제고는 물론 GPS를 활용한 실시간 육·해상 교통체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통해 주요 항만 및 배후도로, 육상운송 업체 간의 연계성이 높아져 이용자는 특정 시간대에 화물 운송 및 하역, 육상 운송이 가능해지고 물류 효율성 제고를 실현할 수 있음
 - 또한 항만 근로자, 항만시설 및 자산, 통행차량, 위험물 취급 등 항만 내 재해취약 분야 및 시설에 생체인식 솔루션 등의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어 항만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이버 보안 기술 등으로 재난 시 국가적 자산인 항만 시설을 보호하는 등 항만에서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음
 - 아울러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물류공급망 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은 의사 결정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디지털 친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으로 입·출항 선박에 대한 실시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항만 대기질 측정 등 친환경 청정항만 구축을 위한 관리·운영이 가능해짐

디지털 기술 연계 스마트 항만 개념도



자료 : maritime-executive.com

참고자료 : www.maritime-executive.com, (검색일: 2020.4.27)

이주원 전문연구원

051-797-4667, peterlee@kmi.re.kr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월밍턴항, 신규 냉장 컨테이너 야드 개장

- 미국 월밍턴항은 최근 터미널 혁신 프로젝트의 2단계를 진행하여 냉장 컨테이너(Reefer Container) 야드를 완공했음
 - 새 야드는 월밍턴(Wilmington) 냉동 창고에 인접해 있으며, 모든 냉장화물 취급한 구역으로 통합하여 항만 효율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노스캐롤라이나주 항만청은 새로운 냉장 컨테이너 야드 완공으로 미국 동남부의 농업 및 식료품 부문 성장에 큰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함
- 새로운 야드 개장으로 수용할 수 있는 냉장 컨테이너 용량이 크게 증가하였음
 - 이번 프로젝트 수행으로 리퍼(냉장) 컨테이너 랙 27개과 새로운 리퍼 서비스 구역이 추가되었으며, 리퍼 컨테이너 플러그는 235개에서 775개로 증가하였으며, 추후 1,000개 이상으로 확장 가능함
 - 터미널 혁신 사업은 월밍턴항의 연간 처리 용량을 두 배인 120만 TEU로 늘리고,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트럭 운송을 위한 차선을 늘리는 새로운 게이트 콤플렉스 건설을 주요 특징으로 함
- 최근 노스캐롤라이나항은 콜드 체인 분야에서 기존의 전례 없는 성장을 경험하고 있음
 - 월밍턴항을 통한 냉장 컨테이너 물동량은 회계연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4배 증가하였음
 - 최근 예측은 역동적이지만, 회계연도 2020년에는 수출과 수입 수요가 모두 증가함에 따라 현재까지 30%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노스캐롤라이나주 항만청은 냉장화물 거점으로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을 세웠으며, 인프라 개선을 통해 기존 및 미래의 고객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음
- 1,400만 달러 규모의 이번 프로젝트는 월밍턴항의 현대화 및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함
 - 이 프로젝트는 2억 달러 이상 투자되는 노스캐롤라이나 항만의 개선 계획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임
 - 기반시설 개선에는 월밍턴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및 게이트 운영체제의 정비가 포함됨

■ 참고자료 : www.ajot.com, www.progressiverailroading.com, (검색일: 2020.4.26)

이지원 연구원

051-797-4799, jiwon@kmi.re.kr



몬트리올항, 화물처리 자동화 솔루션 채택

- Cargotec의 자회사인 Kalmar는 자사의 화물처리 장비 체계(Kalmar SmartPort 프로세스 자동화 솔루션)를 캐나다 몬트리올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Termont Montreal Inc.(Termont)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 서비스 배치, 구성 및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포함된 이 계약은 Cargotec의 2020년 1사분기 주문에 따른 것으로 2사분기부터 인도될 예정임
 - 몬트리올항에 입지한 Termont는 Maisonneuve 터미널을 25년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50만 TEU 이상의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신규로 Viau 터미널을 운영할 예정임
- SmartStack, SmartLift, SmartScreen, SmartMap을 포함한 다양한 Kalmar SmartPort 프로세스 자동화 솔루션 공급계약을 통해 Termont의 전체 화물처리 장비 체계를 구현할 예정임
 - SmartStack와 SmartLift는 리프트 장비 운영에서의 생산성 향상, 인적오류 감소, 터미널 안전성 향상 등에 도움을 주는 프로세스 자동화 솔루션임
 - SmartScreen은 비생산적인 활동을 줄이기 위해 작업지침을 최적화하며, SmartMap은 야드 내 장비 위치 및 컨테이너 경로에 대한 실시간 및 과거 시각화를 가능케 함
- Termont의 GM인 Julien Dubreuil은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실시간 및 과거 장비 데이터에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 예를 들어, SmartMap은 작업 간 장비의 역할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자 교육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의 식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Navis의 N4 터미널 운영체제를 한동안 사용해 왔으며, 이제는 운영자 생산성, 안전성, 데이터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 수집 기능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언급함

■ 참고자료 : www.porttechnology.org, (검색일: 2020.4.28)

이기열 부연구위원

051-797-4670, kylee@kmi.re.kr





DP World, 전 세계 디지털 플랫폼 출시

- DP World는 해상, 육상 및 항공 화물을 통합 관리하는 세계 규모의 새로운 온라인 물류 플랫폼 및 서비스의 출시를 발표함
 - 이집트마리트 소재의 세계적 항만물류 기업인 DP World는 디지털 물류 플랫폼을 통해 화물 운송업자와 모든 사업체들이 해상, 육상 및 항공 화물 선적을 전 세계 어디서나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다고 밝힘
 - DP World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고 필수식품과 의약품에 포함해 원활한 무역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발표 시기보다 출시일을 앞당겼다고 설명함
- 해당 물류 플랫폼은 글로벌 공급망의 효율성, 가시성 및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물류관리 부문을 디지털화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음
 - DP World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해 AirRates.com, LandRates.com과 더불어 SeaRates.com을 인수하였으며, 이를 통해 마우스 클릭 한번으로 전 세계 화물 운송을 지원함
 - 또한 화물 운송업자들이 새로운 서비스의 접근성 및 집중도 개선을 위해 온라인 협회인 '디지털 화물 연합(Digital Freight Alliance)'을 설립함
 - DP World는 전 세계 50여개 국가, 150개 이상의 항만·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 물류 플랫폼은 이러한 인프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엔드-투-엔드 공급망 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DP World의 물류 및 기술담당 최고운영책임자인 Mike Bhaskaran은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어려운 시기에 무역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급망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힘

■ 참고자료 : www.seatrade-maritime.com, (검색일: 2020.4.23)

김영훈 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일본발 미국향 '컨' 물동량 감소세 지속~직항 늘고 환적 줄어

- 미국의 민간 조사기관 데카르트 데이터마인에 따르면, 2020년 3월 기준, 일본발 미국향 컨테이너 화물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한 5만 6,444TEU로 나타났음(적컨, 도착지 기준 실적)
 - 일본발 미국향 컨테이너 화물은 1) 일본-미주 직항로(이하, 직항로), 2) 아시아 역내 환적항로(이하, 아시아 T/S항로) 등 2개의 수송 루트를 이용하고 있음
 - 2020년 3월 기준(이하 동일), 직항로를 이용한 일본발 미국향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이하 동일) 1% 증가한 4만 1,908TEU를 기록했음
 - 동 기간 아시아 T/S항로를 이용한 일본발 미국향 컨테이너 물동량은 6% 감소한 1만 4,536TEU를 기록했음
- 일본발 미국향 컨테이너 화물의 직항로 이용 비중은 74.2%, 아시아 T/S항로 이용 비중은 25.8%로 나타남
 - 일본발 미국향 컨테이너 화물의 직항로 이용 비중은 전년 3월의 72.9%보다 1.4%p 증가했음
 - 역으로, 아시아 T/S항로 이용 비중은 전년 3월의 27.1%보다 1.4%p 감소했음
- 직항로를 이용하는 일본발 미국향 컨테이너 물동량 순위를 항만별로 살펴보면, 1위는 도쿄항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2만 619TEU를 기록했음
 - 2위 나고야항은 11% 증가한 1만 1,534TEU, 3위 고베항은 10% 증가한 7,334TEU를 처리하며 상위 3개 항만 모두 두 자릿수 증가했음
 - 반면, 4위 요코하마항은 69% 감소한 912TEU, 5위 시미즈항은 73% 감소한 722TEU로 급감했음
 - 직항로 이용 일본발 미국향 컨테이너 물동량 실적에서 상위 5개 항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98.1%로 전년 3월의 94.9%보다 3.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우리나라 T/S 항로를 이용하는 일본발 미국향 컨테이너 물동량 순위를 살펴보면, 1위인 하카타항이 전년 동기 대비 32% 대폭 감소한 1,643TEU를 기록했음
 - 2위 고베항도 16% 감소한 1,480TEU를 기록했음
 -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부산항) T/S항로를 이용하는 일본발 미국향 컨테이너 물동량의 감소 추세가 두드러지며, 그 요인으로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등이 지목됨
- 미중 무역 분쟁 및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의 영향으로 일본의 항만 물동량은 5개월 연속으로 전년 대비 감소 실적을 기록 중임
 - 일본의 대표적인 대미 수출 품목 '자동차부품'은 전년 동기 대비 44%로 대폭 감소하여 6개월 연속 물동량 감소세가 지속됨
 - 그 외에 '차량기기 및 부품'과 '건설기계'도 각각 6%,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일본의 對한국 수출 규제,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19 확산 등 최근에 발생한 글로벌·지역적 이슈가 일본의 대외 무역 및 항만 물동량 추세에 커다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됨
 - 특히 4월 16일에는 일본 전역에 걸친 '코로나19 긴급사태'가 선포되었으며, 이러한 악재가 일본의 대외 무역 및 항만 물동량 감소 추세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일본 정부의 총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됨



■ 참고자료 : www.secure.marinavi.com, (검색일: 2020.4.28)

한성일 부연구위원
051-797-4781, han@kmi.re.kr



공지사항

2020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수정공고

「2020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인 「2020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과 「2020년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의 대상 기업 모집과 관련하여('20.2.24 시행)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 합니다.

	현 행	수 정
접수 기간	○ 2020.2.24.(월) ~ 2020.4.3.(금) 18:00까지	○ 2020.2.24.(월) ~ 2020.5.28.(목) 18:00까지

2020년 3월 23일

해양수산부 장관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대상 기업 모집

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을 활성화와 국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활성화하고 양 업계 간 상생협력 풍토를 조성하고자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본 사업의 세부사업인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2020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모집 안내

1. 신청 대상자

-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2. 대상 사업

- ☐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

《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

구분	사업 내용
일반진출형	해외 현지법인 설립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 (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인수합병형	현지 물류기업 (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 인수·합병 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 (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시설투자형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 (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3. 지원내용

□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 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분석 지원

*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경제·기술·재무·법률 등 측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

□ (지원규모) 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 1건당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일반진출형)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인수합병형/시설투자형)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타당성조사 보조금 지원 기준 》

구분	지원 비용	지원비율
일반진출형	최대 5천만원	조사비용의 50%
인수합병형	최대 8천만원	조사비용의 50%
시설투자형		

□ (지원내용) 보조금 수혜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비용**(계약기준)에 대해서만 지원

* 수혜기업의 자체활동 비용(예: 직원의 해외 출장비, 인건비 등)은 인정되지 않음

2020년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 대상 모집 안내

1. 신청대상자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컨소시엄

- **물류기업**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유통·무역·건설·자원·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
 -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2. 대상 사업

- **(개념)**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협력을 통해 화주기업은 해외 생산시설 판로 확보, 현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고, 물류기업은 화주기업의 물량을 매개로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물류거점·네트워크 확보, 현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

□ 대상사업 유형 예시

- ① **(동시진출형)**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협력을 통해 화주기업은 해외에 신규 생산시설·판로 확보, 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고, 이와 동시에 물류기업은 신규로 진출하는 시장에 현지 물류거점 확보,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
- ② **(화주주도형)**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물류기업이 **현지에 먼저 진출한 화주기업**과 협력하여 현지 물류거점 확보,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
- ③ **(물류주도형)**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화주기업이 **현지에 먼저 진출한 물류기업**과 협력하여 생산시설·판로 확보,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
- ④ **(현지협력형)** 현지에 진출한 화주·물류기업이 협력하여 신규 생산시설·판로·물류거점 확대, 신규법인 설립 등 각자의 사업영역 확장을 추진하는 경우

3. 지원내용

- 화주·물류기업 간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규모)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약 4천만원)까지 보조금(국비)을 지원하며, 나머지 기업부담분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부담
 -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보조금 교부 예정
 -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수행조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체결해야함
 - (컨설팅 수행) 컨설팅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물류기업 또는 화주 기업)이 직접수행*을 원칙으로 하나, 컨소시엄 협의 하에 선정된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업체 등에 자문 또는 컨설팅의 일부를 위탁 수행할 수 있음
 - * 참여기업은 운영기관과 협의를 통해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업체 등에 컨설팅 전체를 위탁 수행 할 수 있음. 단, 컨설팅 전체 위탁 시에는 신청기업의 자체 활동 비용(예: 직원의 해외 출장비, 인건비 등)은 지원 대상에 인정되지 않음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0. 2. 24(월) 09:00 ~ 2020. 5. 28(목) 18:00 까지

□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①	신청서 1부	서류, 전자파일 함께 제출	양식 1
②	사업제안서 10부	서류, 전자파일 함께 제출	양식 2
③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		양식 3
④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행		
⑥	최근 3년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⑧	그 밖에 사업제안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컨소시엄 형태 신청기업의 경우,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를 참여 기업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 (가산점) 유효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서(국토부 및 해수부 장관 발행) 제출하여야 함

□ 접수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주소 :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해운·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전자파일 저장매체(USB) 동봉)

* e-mail 접수 불가

선정 기준 및 방법

□ 선정 기준

-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평점 60점(1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예산의 한도 내에서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되며, 그로 인해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지원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 별도 공고 또는 신청기업 개별 통지
- 신청기업은 7인 내외로 구성된 심사위원에게 사업제안서 내용*을 발표 (발표 20분, 질문·답변 10분)

* 사업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별도 형태의 자료(e.g. PPT, PDF 등)로 발표 가능

□ 선정결과 발표 : 평가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

유의사항

-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붙임 참조)

-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 전체 또는 일부 위·변조 혹은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누락 혹은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 ☐ 신청기업은 필요에 따라 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실시하는 정기설문에 응할 의무가 있음
- ☐ 기타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051-797-4774, 051-797-4913)로 문의 바람